광주학생독립운동 주역 박준채의 새로운 시 '제초소감' 발굴

나주 출신 박준채(1914~2001)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역이자 애국지사다. 광주고보 2학년재학시절인 1929년 10월 30일, 광주-나주간 통학 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데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일본 중학생에 맞섰다. 당시 그의 의로운 행위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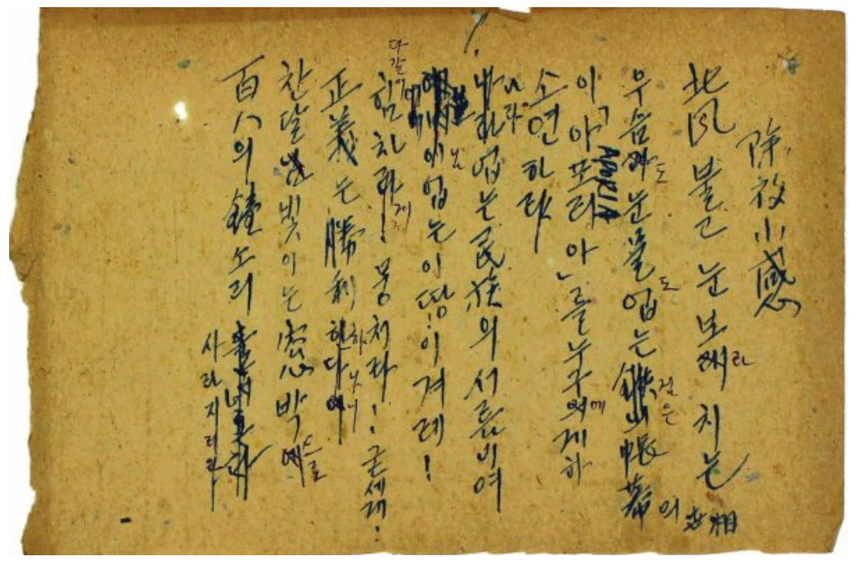
제 104주년 3·1절을 앞두고 겨레의 단결과 희망을 호소한 독립운동가 박준채의 새로운 시가 발굴돼 일본 시 전문지에 소개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김정훈 교수(전남과학대)가 박준채의 식민지기 작성 시 31편을 알려 이목을 끈 바 있다. 이번에 다시 김 교수가 관련 연구를 지속해오다 박준채가 1950년에 친필로 작성한 '제초소감(除初小感)'이라는 시를 발굴한 것. 이번 작품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소장 중인 박준채의 시 31편을 담은 원고 노트 사이에 쪽지 형태로 끼워져 있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시와 사상' 편집자로부터 박준채에 대한 시인론(3월호)을 의뢰받아 자료를 다시 살피며 집필하던 중에 노트 속에 끼워진 작품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고가 실린 노트를 분석한 결과 박준채가 '나주댕기머리 사건'이 발발한 1929년~1940년까지 시 40편(현존 31편)을 집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50년에도 시를 집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준채


'제초소감'

'무제'

김정훈 교수,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소장 노트서 발견

"겨레의 단결·희망 호소"… 日 시전문지에 소개 예정 '화제'

"북풍北風 불고 눈보라 치는 세상世相/ 우슴도 눈물도 업는 짙은 장막帳幕의/ 이 '아포리'를 누구에게 하소연하랴/ 나라 업는 민족民族의 서름이여/ 님 업는 이 땅! 이 겨레!/ 다같이 힘차게 뭉처라! 굳세게!/ 정의正義는 승리勝利하나니/ 찬달 빛이는 창窓박으로/ 백팔百八의 종소리 사라지리라/ 이 강산江山에 새봄이 오면/ 썩은 고목枯木도 다시 싹이 트나니/ 배달의 아들 딸들아/ 함마를 억게에 힘차게 매고 싸우라!/ 일하라! 배우라!/ 미래未來의 새 삶을 위爲하여!

멀니서 들려오는 희망希望의 종소리/ 이땅의 겨레에게 자유自由를 주라/ 영원한 행복幸福을!"(1950, 12, 31. 淸溪莊에서 해촌海村)

박준채는 해방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항일 학생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당시를 회고하며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되새기고 다 같이 힘차게 뭉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미래의 새 삶을 위해' 투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민족수난기인 6·25전쟁의 해에도 시 창작을 통해 광주학생운동을 돌이키며 민족의식을 불태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근심 어린 시선으로 현실을 주시하고 겨레의 앞날에 서광이 비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김정훈 교수는 일본 시 전문지 '시와 사상' 3월호(3월 1일 발행) '시인론'란에 '역사적 인물 박준채의 시 발굴—소환되는 사건·각인된 언어'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가 박준채를 일본 독자에게 최초로 소개한다.

김 교수는 도입부에서 작년 10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명한 관장)과 박준채의 생가(남파고택)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준채를 거대한 항일 학생운동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이자 한일의 역사를 거론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상징적 존재라고 소개한다.

김교수는 본론에서 일본 독자들을 의식해 박준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1937년의 제석(除夕)'과 '촌감(寸感)'이라는 시를 소개한다. 1937년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서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며 조선의 병참 기지화를 노골적으로 강행하던 시기이다.

박준채가 이듬해인 38년 집필한 '촌감'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학생운동으로 희생된 동료와 선배의 넋을 위령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박준채는 도쿄의 한복판에서 "불타는 이 심금/ 살펴 아시리라/ 미래에 살아든 그들의 꿈/ 가신님들에게/ 행운의 그날이 있도록/ 부디 전하여 주소서!"라고 노래했다.

김 교수는 "박준채는 한일의 어두운 시대를 돌이키게 하고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상징적 인물"이라며 "일본 독자들에게도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박준채의 언어가 1929년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그 사건과 함께 새롭게 소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제서야 비로소…'

고화흠 전, 전남도립미술관 3월26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개관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전남 지역 작가를 발굴, 이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올해 미술관이 연구를 진행한 작가는 구례 출신 고화흠(1923~1999) 작가다. 오는 3월26일까지 '고화흠: 이제 서야 비로소 나의 백안白岸을 찾아'전은 인간 고화흠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보는 기획이다. 전시는 유족의 작품 기증으로 성사됐다.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 녹음사화학교 회화과에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귀국 후 1956년 서울에서 장리석 등과 한국수채화협회를 만들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로 다양한 작품을 출품한 그는 성신여대를 거쳐 1976년 원광대 미술대학 교수를 맡으면서 교육자로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전시 제목에 등장하는 '백안白岸'은 작가가 원광대에서 정년퇴직하며 자필로 쓴 '백안기' 중 "나는 한편으로는 섭섭하면서도 또한 끗 마음이 설레었다. 그 설레임은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 그 진실을 찾아 홀가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기대감이었으리라…"에서 따왔다.

'하얀 언덕'이라는 뜻의 '백안(白岸)'은 그가 언젠가 도착해야 할 이상향으로, 그는 1970년대 이후 '백안'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은백색의 물결과 바다 표면에서 일렁이는 그림자에서 나온 서정적인 색채의 유화 작품을 제작했다. 전시에서는 부드러움 색감이 어우러진 따뜻한 추상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고 화백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감을 추구하는 장으로 수채화 장르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왔으며 다양한 작업도 이어왔다. 전시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채화도 전시중이다.

고 화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예술적 동반자였던 아내 김은숙(1926~2020) 작가다. 그는 이화여대 섬유예술학과 1회 졸업생인 아내의 예술 조력자 이기도 했다. 전시에서는 고 화백의 밑그림을 바탕으로 김 작가가 작업한 자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카데미 주연상 후보작 만나볼까

'더 웨일'·'타르' 등 광주극장 개봉

영화 '타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변신한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지휘자의 권력과 욕망을 실감나게 보여준 그의 연기 덕에 주인공 리디아 타르는 마치 실존 인물같은 생명력을 얻는다.

올해 열리는 아카데미시상식에서 강력한 주연상 후보로 꼽히는 배우 등 연기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영화가 광주극장에 걸린다.

한창 상영중인 '타르'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수석 지휘자 리디아 타르의 정점과 추락을 그린 영화로, 그의 심리 상태를 밀도 있게 그려낸 토드 필드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각품이다.

영화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여우주연상을 포함해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고 케이트 블란쳇은 제80회 골든 글로브, 제7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3월1일 개봉하는 '더 웨일'은 272kg의 거구로 세상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대학 강사가 9년 만에 만난 10대 딸과 쓰는 마지막 에세이를 담은 작품이다. '블랙 스완'을 연출한 대런 애로노프스키 감독의 신작으로, '미이라'의 스타 브렌든 프레이저와 세이디 싱크가 부녀 호흡을 맞췄다.

브렌든 프레이저는 현재 전 세계 연기상 23개를 석권하며 올해 가장 강력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로 꼽히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는 3월 8일 개봉하는 '콜 제인'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가 인정되기까지 시카고에서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들을 비밀리에 도운 실존 단체 '제인스'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해 미국에서 49년만에 폐기됐다.

'타르'

임신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조이가 '제인스'를 만나 세상을 바꾼 변화의 불씨가 되어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시고니 위버가 제인스의 리더 역을,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조이 역을 맡았다. 필리스 나지 감독 작품이다.

'6번 칸'(3월9일 개봉)은 암각화를 보러 가기 위해 무르만스크 행 기차에 탑승한 라우라와 우연히 '6번 칸'에서 만나게 된 료하가 목적지에 다다를수록 변해가는 감정과 관계를 그린 영화다. '버라이어티'지로 부터 현실판 '비포 선라이즈'등의 호평을 받았며 제74회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inemagwangju)서 상영시간 확인.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틈'을 모티브로 조명한 다채로운 국면들

백애송 시인, 비평집 '트렌드 포에트리:틈의 계보학' 펴내

"인간의 삶은 틈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틈은 자아와 자아 사이 혹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도 있다. 이 틈 사이에서 인간의 삶도 이루어지고 있다. 틈 사이이지만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틈과 틈 사이의 영역을 채워 주는 문학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인 백애송 평론가가 비평집 '트렌드 포에트리: 틈의 계보학'(걷는사람)을 펴냈다.

저자는 이번 비평집에서 틈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와 비존재를 재증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언어에서 발현되는 시를 모티브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다채로운 국면을 들여다본다. 또한 시인의 감성과 개성을 통해 시로 발현되는 '틈'의 국면을 특유의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양극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 틈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가깝고도 먼 나라, 고려인들의 디아스포라-이동순론'을 비롯해 '존재와 비존재, 그 사이-박지웅론', '마음으로 전하는 언어-윤호론' 등 모두 8개의 글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사람과 사람, 우리의 이야기-배창환, 길상호론', '경건한 삶의 언어-함순례, 유준화론', '절제된 언어와 철학적 삶의 메시지-박송이, 유계자론' 등의 13개의 비평이 수록돼 있다.

제3부에서는 저자가 연구한 주제를 묶은 글 5편을 만날 수 있다. "틈, 그리고 배려", '층위의 경계에 놓인 삶', '보이지 않는 뿌리의 시간', '갇힌 공간에서의 일상과 균형' 등이 그것이다. 이 글들은 저자가 앞서 상정한 '보이는 틈과 보이지 않는 틈'으로 수렴되는 주제들로 수미상관의 특징을 보인다.

저자는 "틈 사이에서 늘 그림자처럼 서성이는 나의 언어들이 한 권의 책 안에서 가만히 숨쉬기를 바라 본다"며 "이 책은 내가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그들의 글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한편 백 시인은 2016년 '시와 시학'에 평론을 발표하며 평론가로 같은 해 '시와 문화'에 시를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우리는 어쩌다 어딘가에서 마주치더라도'와 연구서 '이성부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을 펴냈으며 광주대 초빙교수로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37만여 정보 쉽게 찾아요

문화유산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누리집 명칭이 '문화유산 지식e음'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누리집의 새 이름을 '문화유산 지식e음'로 개편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누리집에는 한국고고학사전(고고)을 비롯해 한국의 전통문양(미술), 건축 문화유산3D(건축), 고문헌 전통재료(보존) 등 약 37만건을 비롯한 최신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연구원은 새 이름과 더불어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사한 성격 또는 중복된 메뉴를 통합·간소화했으며 가독성과 편의성을 살린 화면으로 구성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용운 '님의 침묵' 초판본 1억5100만원에 낙찰

국내 현대문학 작품 사상 최고가

경매회사 코베이옥션은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시집 '님의 침묵' 초판본〈사진〉이 온라인 경매에서 1억5100만원에 낙찰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경매에서 '님의 침묵'은 시작가 5500만원에 출품됐다.

코베이옥션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2015년 한 경매에서 1억3500만원에 낙찰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초판본을 넘는 가격으로, 국내 현대문학 작품 사상 최고가"라고 설명했다.

'님의 침묵'은 한용운이 옥고를 치른 후인 1925년 강원 백담사에서 완성한 대표작이다. 이듬해인 1926년 회동서관(匯東書館)을 통해 '알 수 없어요', '비밀' 등 총 88편의 시를 모은 뒤 '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달아 초판본이 출간됐다.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재출간했으나 일제에 의해 금서로 지정돼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초판본에는 창작 동기를 제시한 '군말'이 시집의 앞부분에, '독자에게'가 뒷부분에 각각 담겨있다.

/연합뉴스